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및 임파워먼트의 관계

최연희<sup>1</sup>, 정창숙<sup>2\*</sup>

<sup>1</sup>경북대학교 간호대학, <sup>2</sup>대구대학교 간호학과

##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Impowerment in Nursing students

Yeon-Hee Choi<sup>1</sup>, Chang-Suk Ju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Daeg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및 임파워먼트의 관계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5년 3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D시 소재 4년제 간호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AMOS 19.0을 이용하였고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셀프리더십은 3.36점, 자기효능감은 3.02점, 임파워먼트는 3.28점이었고,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r=.306, p<.001$ ),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 $r=.291, p<.001$ ), 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 $r=.559, p<.001$ )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beta=.53$ (C.R.=2.885,  $p=.004$ ),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beta=.42$  (C.R.=1.999,  $p=.046$ ), 자기효능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beta=.45$  (C.R.=3.412,  $p<.001$ )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가 검증 되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 셀프리더십 향상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다.

**Abstract**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Self-leadership and Impowerment in the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02nd March to 29th March.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structural questionnaire from 166 nursing students in 2 Nursing department in D city.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WIN 19.0, AMOS 19.0 and Sobel Test. The mean value of were as follows: self-leadership 3.36, Self-efficacy 3.02, Impowerment 3.28. There was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r=.306, p<.001$ ), self-leadership and Impowerment( $r=.291, p<.001$ ) and between Self-efficacy and Impowerment( $r=.559, p<.001$ ). This study confirmed that Self-efficacy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Impowerment. To improve Self-efficacy, enhancing self-leadership and Impowerment is required.

**Keywords** : Impowerment, Self-efficacy, Self-leadership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전공에 대한 학업적 스트레스와 학우와의 대인관계, 시험, 취업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전공에 대한 전문적 지식 습득과 함께 임상실습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노출을 일찍

경험하게 되어 대학생활 적응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1].

또한 임상현장이라는 낯선 환경과 함께 실습 중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역할 갈등 및 지식부족,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는 한계점, 예상치 못하는 위기 상황,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2] 이러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간호대학생은 실습이 두려워지고

\*Corresponding Author : Chang-Suk Jung(Daegu Univ.)

Tel: +82-10-3302-4144 email: ckdtnrri@naver.com

Received June 9, 2015

Revised July 1, 2015

Accepted July 16, 2015

Published July 31, 2015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되는 심각한 위축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3]. 이처럼 간호학생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간호 지식과 기술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간호대상자들은 간호학생들을 신뢰하지 못해 간호학생들이 자신에게 간호술기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4].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사회로의 진입에도 도움을 주는 요소로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자율성이 강조된 자기관리와 내적동기부여’로서 [5],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면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을 정하여 틀에 맞추어 제공하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습하는 등 자율성과 열정을 수반하게 된다[6].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취업전략과 학업에 흥미를 더하여 성과를 나타내며, 학과만족도를 높임을 물론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설계한 목표를 향하여 자율성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등 개인적 성장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며, 대학생에게 필요한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7].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유도하며[8],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켜 업무성과가 향상됨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5].

더불어 임파워먼트는 자기 효능감, 동기부여, 조직몰입, 자율성, 참여적 경영에 대한 인식, 직무만족을 증진시키며 개인의 변화가 유도하고, 이러한 개인적 변화는 성취와 성공, 조직에서 존경과 협력, 고객 만족의 업무효과성으로 나타나며[9]

이 중 개인의 임파워먼트는 자기 신뢰와 역량, 영향력,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동기부여, 자율성, 자기통제감 등의 증진, 역할이나 조직에의 몰입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 정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다는 정적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10].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를 증진하기 위한 매개요소인 자기효능감에 대해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선행요인, 결과

요인, 인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들은 사람 및 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중 기대기능을 특히 중시하여 결과기대와 효능감 기대로 나누었는데 결과기대란 어떤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고 효능감 기대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 하였다[11].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행동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결국 인간의 행동은 행위자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전에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 및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상현장실습전의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 소재의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 경험하지 않은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6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총 166명(99.4%)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수에 대한 근거는 Bentler(1987)의 연구에 따라 표본수가 추정모수의 5-10배 정도되면 적합하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추정모수인 경로6개와 잔차8개에 대한 표본수는 최대 140개 이상이면 적합한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하여 대상자의 수는 166명으로 적합하다.

## 2.2 연구의 개념적 틀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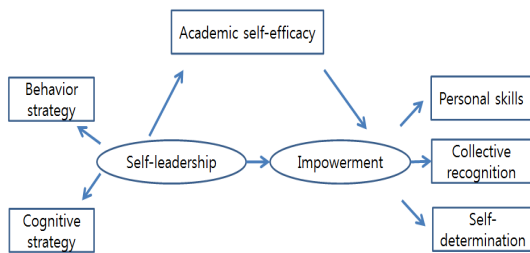


Fig. 1. The conceptual frame work of the study

## 2.3 연구도구

### 2.3.1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Manz(1983)[6]가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김한성(2002)[1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평가문항은 행동전략 9문항과 인지전략 9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김아영(2001)[14]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평가문항은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아영

(2001[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84이었다.

### 2.3.3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Bolton과 Brooking(1998)[15]가 개발한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척도를 사용한 주애란(2006)[1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평가문항은 개인적 능력은 16문항, 집단인식은 5문항, 자기결정은 8문항이며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형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다. 주애란(2006)[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K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IRB 2015-5). 자료는 2015년 03월 02일부터 03월 29일까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진행을 위하여 해당 간호대학의 학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하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 거부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모든 설명을 마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참여동의서와 함께 본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을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고 상관을 분석하였고, AMOS 19.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 알파 계수를 산출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도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RMSEA, RMR, GFI, CFI, NFI를 사용하였고 서로 포함관계에 있는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모형의 매개효과 크기를 검정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3.36 \pm 0.37$ 점으로 하위영역인 행동적 전략은  $3.31 \pm 0.38$ 점, 인지적 전략은  $3.66 \pm 0.75$ 점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3.02 \pm 0.41$ 점으로 나타났고, 임파워먼트는  $3.28 \pm 0.36$ 점으로 하위영역인 개인적 능력은  $3.34 \pm 0.39$ 점, 집단인식은  $3.30 \pm 0.60$ 점, 자기결정은  $3.18 \pm 0.42$ 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Level of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Impowerment (N=166)

Spec	Mean	SD	
Self-leadership	Behavior strategy	3.31	0.38
	Cognitive strategy	3.66	0.75
	Total	3.36	0.37
Academic self-efficacy	3.02	0.41	
Impowerment	Personal skills	3.34	0.39
	Collective recognition	3.30	0.60
	Self-determination	3.18	0.42
	Total	3.28	0.36

####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는 166명으로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80 \pm 1.8$ 세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12.7%, 여자가 87.3%이며,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률 고려가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성을 고려가 28.3%, 타인의 권유가 12.7%, 성적에 맞추어가 4.2%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가 49.4%, 보통이다가 44.6%, 낮다가 6.0%이었다. 전반적인 학교 생활만족도는 보통이다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높다가 34.3%, 낮다가 15.7%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높다가 56.6%, 보통이다가 39.2%, 낮다가 4.2%이었다. 선호하는 학습법은 강의식 수업이 54.8%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수업이 17.5%, 자율학습이 13.9%, 문제중심 학습이 8.4%, 토론식 수업이 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업성적은 3.0이상 3.5미만이 41.6%, 3.5이상 4.0미만이 28.9%, 2.5이상 3.0미만이 18.7%, 4.0이상이 7.8%, 2.5이하가 3.0%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Spec.	M±SD or n(%)	
Age	20.80±1.8	
Gender	Male	21(12.7)
	Female	145(87.3)
Application reason	Employment considerations	91(54.8)
	Suggestion others	21(12.7)
	Consider aptitude	47(28.3)
	According to the grade	7(4.2)
Satisfaction of major	High	82(49.4)
	Middle	74(44.6)
	Low	10(6.0)
Satisfaction school life	High	57(34.3)
	Middle	83(50.0)
	Low	26(15.7)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High	94(56.6)
	Middle	65(39.2)
	Low	7(4.2)
Preferred learning	Lecture	91(54.8)
	Discussion	9(5.4)
	Self-study	23(13.9)
	Problem based learning	14(8.4)
	Practice	29(17.5)
	2.5≤	5(3.0)
Academic achievement	2.5≤ ~3.0 <	31(18.7)
	3.0≤ ~3.5 <	69(41.6)
	3.5≤ ~4.0 <	48(28.9)
	4.0≤	13(7.8)
Total	166(100.0)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에서는 성별, 전공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학업성적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기효능감에서는 성별,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적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파워먼트에서는 성별, 전공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셀프리더십에서 성별은 남자가 3.52점, 여자가 3.3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t=-2.086$ ,  $p<0.05$ ) 여자에 비해 남자가 셀프리더십 점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높다가 3.46점, 보통이다는 3.28점, 낮다는 3.19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5.930$ ,  $p<0.01$ ), 사후검

정 결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일수록 셀프리더십 점수가 높았다.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는 높다가 3.54점, 보통이다는 3.28점, 낮다는 3.2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11.039, p<0.001), 사후검정결과,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점수가 높았다. 대인관계 만족도에서는 높다가 3.49점, 보통이다는 3.20점, 낮다는 3.21점으로 자기효능감에서 성별은 남자가 3.34점, 여자가 2.9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4.002, p<0.001) 여자에 비해 남자일수록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었다.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는 취업률 고려는 2.94점, 타인의 권유는 3.04점, 적성을 고려는 3.14점, 성적에 맞추어는 3.1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042, p<0.05), 사후검정 결과 취업률 고려에 비해 적성을 고려하거나 성적에 맞추어서 들어온 사람들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더 높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높다가 3.15점, 보통

이다는 2.91점, 낮다는 3.7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0.789, p<0.001), 사후검정 결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다. 학업성적에서는 2.5점 이하는 2.99점, 2.5점 이상 3.0점 미만은 2.89점, 3.0점 이상 3.5점 미만은 3.99점, 3.5점 이상 4.0점 미만은 3.08점, 4.0점 이상은 3.2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2.527, p<0.05), 사후검정 결과, 2.5점 이상에서 3.0점 미만보다 4.0점 이상 일수록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다.

임파워먼트에서 성별은 남자가 3.47점, 여자가 3.2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566, p<0.05) 여자에 비해 남자일수록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높다가 3.38점, 보통이다는 3.21점, 낮다는 3.0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8.363, p<0.001), 사후검정 결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인 사람에 비해

**Table 3.** Difference of Self 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mpowerm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66)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Impowerment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Age	Male	3.52±.33	-2.086*	.039		3.34±.39	-4.002***	.000		3.47±.37	-2.566**	.011	
	Female	3.34±.37				2.97±.39				3.26±.35			
Gender	Employment considerations	3.34±.39	.635	.593		2.94 <sup>a</sup> ±.39	3.042*	.031	a<b	3.23±.33	2.677	.050	
	Suggestion others	3.34±.35				3.04 <sup>ab</sup> ±.49				3.26±.47			
	Consider aptitude	3.41±.35				3.14 <sup>b</sup> ±.40				3.41±.34			
	According to the grade	3.47±.36				3.17 <sup>b</sup> ±.20				3.22±.39			
Application reason	High	3.46 <sup>b</sup> ±.36	5.930**	.003	a<b	3.15 <sup>b</sup> ±.40	10.789***	.000	a<b	3.38 <sup>b</sup> ±.36	8.363***	.000	a<b
	Middle	3.28 <sup>ab</sup> ±.36				2.91 <sup>ab</sup> ±.35				3.21 <sup>a</sup> ±.34			
	Low	3.19 <sup>a</sup> ±.45				2.72 <sup>a</sup> ±.51				3.00 <sup>ab</sup> ±.30			
Satisfaction of major	High	3.54 <sup>b</sup> ±.35	11.039***	.000	a<b	3.12±.42	2.860	.060		3.40 <sup>b</sup> ±.39	4.900**	.009	a<b
	Middle	3.28 <sup>a</sup> ±.33				2.97±.37				3.21 <sup>a</sup> ±.33			
	Low	3.23 <sup>a</sup> ±.40				2.95±.45				3.27 <sup>ab</sup> ±.32			
Satisfaction school life	High	3.49 <sup>b</sup> ±.32	13.711***	.000	a<b	3.08±.41	2.859	.060		3.39 <sup>b</sup> ±.36	10.123***	.000	a<b
	Middle	3.20 <sup>a</sup> ±.38				2.95±.39				3.15 <sup>a</sup> ±.31			
	Low	3.21 <sup>a</sup> ±.34				2.81±.42				3.15 <sup>a</sup> ±.30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Lecture	3.37±.40	1.612	.174		2.99±.39	1.200	.313		3.25±.36	.810	.521	
	Discussion	3.52±.24				3.30±.39				3.37±.36			
	Self-study	3.45±.36				3.02±.28				3.25±.34			
	Problem based learning	3.37±.27				3.02±.42				3.29±.35			
	Practice	3.24±.37				3.00±.53				3.38±.39			
Preferred learning	2.5 ≤	3.42 <sup>ab</sup> ±.40	6.757***	.000	a<b	2.99 <sup>ab</sup> ±.44	2.527*	.043	a<b	3.27±.22	1.209	.309	
	2.5 ≤ ~3.0 <	3.12 <sup>a</sup> ±.48				2.89 <sup>a</sup> ±.43				3.25±.36			
	3.0 ≤ ~3.5 <	3.34 <sup>ab</sup> ±.32				2.99 <sup>ab</sup> ±.41				3.24±.36			
	3.5 ≤ ~4.0 <	3.53 <sup>b</sup> ±.30				3.08 <sup>ab</sup> ±.37				3.32±.35			
	4.0 ≤	3.46 <sup>ab</sup> ±.29				3.27 <sup>b</sup> ±.32				3.46±.42			

높은 사람일수록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았다.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는 높다가 3.40점, 보통이라는 3.21점, 낮다는 3.2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4.900, p<0.01$ ), 사후검정 결과,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보통인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일수록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았다. 대인관계 만족도에서는 높다가 3.39점, 보통이라는 3.15점, 낮다는 3.1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10.123, p<0.001$ ), 사후검정 결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았다[Table 3].

### 3.4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의 상관관계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및 임파워먼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r=.306, p<.001$ ),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 $r=.291, p<.001$ ), 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 $r=.559, p<.001$ )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4.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rrelation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Impowerment (N=166)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Impowerment
Self-leadership	1		
Academic self-efficacy	.306*** ( $p<.001$ )	1	
Impowerment	.291*** ( $p<.001$ )	.559*** ( $p<.001$ )	1

\*\*\* $p<.001$ , \*\* $p<.01$ , \* $p<.05$ .

### 3.5 매개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은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 간에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며, 셀프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부분매개모형이다. 경쟁모형은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지정하는 완전매개모형이다. 이들 중 더 좋은 모형을 알아보고 더 좋은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분매개 모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인 경쟁모형의 그림은 다음과 같으며 각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연구모형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Parameter of Partially Mediated Model (N=166)

		S.Esti	Esti	S.E.	C.R.	P
		mate	mate			
Academic self-efficacy	<- Self-leadership	.530	.380	.132	2.885**	.004
Impowerment	<- Academic self-efficacy	.446	.340	.110	3.412***	.000
Impowerment	<- Self-leadership	.415	.226	.113	1.999*	.046

\*\*\* $p<.001$ , \*\* $p<.01$ , \* $p<.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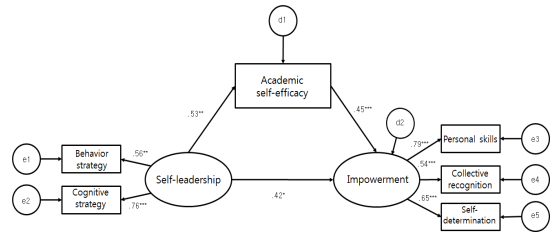


Fig. 2. partially mediated model(Standardized beta weight).

#### 2) 경쟁모형

경쟁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Parameter of Fully Mediated Model (N=166)

		S.Estim	Estim	S.E.	C.R.	P
		ate	ate			
Academic self-efficacy	<- Self-leadership	.545	.405	.151	2.672**	.008
Impowerment	<- Academic self-efficacy	.675	.489	.063	7.742***	.000

\*\*\* $p<.001$ , \*\* $p<.01$ , \* $p<.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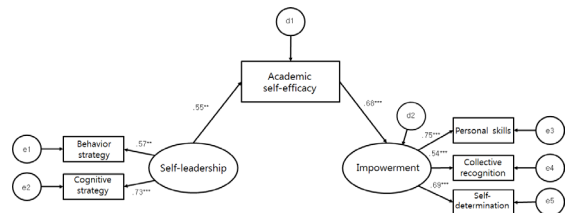


Fig. 3. Full mediated model(Standardized beta weight).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에 어떻게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했을 때, 연구모형이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에서 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모형의  $\chi^2$  차이 값은 11.146이며, 이 값은 자유도의 차이가 1일 때, 유의수준 5%에서  $\chi^2$  차이의 임계값인 3.84보다는 큰 값이므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Fit indices** (N=166)

Model	$\chi^2$	RMSEA	RMR	GFI	CFI	NFI
Partially mediated model (A)	11.315 (df=7, p=.125)	.061	.008	.978	.979	.948
Fully mediated model (B)	22.461 (df=8, p=.004)	.105	.020	.957	.929	.898
$\chi^2$ 차이 검증(A:B)	$\Delta\chi^2 = \chi^2_B - \chi^2_A = 11.146^* (\Delta df = 1)$					

최종적으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즉,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최종모형의 총효과 분해 및 매개효과검증**

매개효과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더라도, 그 효과 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해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보았다. 이는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Sobel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최종모형에서 그 효과성을 분해하게 되면, 셀프리더십은 직접적으로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0.415,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0.237로 나타났다. 다중상관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이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28.1%이고, 임파워먼트를 설명하는 정도는 56.8%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Direct, Indirect, Total effects and SMC** (N=166)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Academic self-efficacy <- Self-leadership	.530 (p<.001)	-	.530 (p<.001)	.281
Impowerment <- Self-leadership	.415 (p=.003)	.237 (p=.010)	.651 (p<.001)	.568
Impowerment <- Academic self-efficacy	.446 (p=.047)	-	.446 (p=.047)	

\*\*\*p<.001, \*\*p<.01, \*p<.05.

이 매개효과의 크기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Sobel(1982)의 Z 공식에 의하면 Z 값이 양쪽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클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2.107, p=.035). 이는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및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파악하고, 매개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연구의 결과 셀프리더십은 3.3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종율, 조미혜[17]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셀프리더십의 3.74±0.47점보다는 조금 낮은 결과이며, 양남영과 문선영[18]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3.72점보다는 조금 낮은 결과이다. 이윤신 외 [19]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 점수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학년별로 2학년은 3.29점, 3학년은 3.43점, 4학년은 3.36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셀프리더십 정도가 선행연구보다 낮은 것은 이종율, 조미혜[17]의 연구는 3년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후에 시행되었으며, 양남영과 문선영[18]의 연구는 3,4년제의 구분은 없으나 한 학기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가 낮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3.02점으로 정수경[20]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 3.23±0.40보다 낮게 결과이며, 한수정[10]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자기효능감은 3.81점이었고,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Chang[21]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2.58점(4점 만점), Lee와 Choi[22]의 3.15점(5점 만점), Lee[23]의 3.10점(5점 만점)과 비교했을 때 연구대상자가 간호대학생일 경우 일반 대학생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선행연구들에 비해 낮은 결과인데, 이 또한 임상실습을 앞둔 시점의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호대학생은 중등도 이상의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학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인식함으로 비교적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임파워먼트는 3.28점으로 한수정[10]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가 4.33점이었고, 최정[24]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가 3.40±0.3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결과임으로 연구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의 임파워먼트가 낮게 측정된 것 역시 학기를 시작하는 시기의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 정도는 낮음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chi^2$ 값이 11.315(df=7, p=.125)로 나타났고 RMSEA=.061, PMR=.008, GFI=.978, CFI=.979, NFI=.948로 나타나 적합도가 좋게 나타났다.

먼저, 셀프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 경로계수 0.42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CR(Critical Ratio)=1.999에 대한 유의확률 p=0.0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구성원의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것이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으므로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 셀프리더십의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사고등을 유발, 증진 하는데 있어 조직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에 경로계수

0.53으로 영향을 미치고 CR=2.885에 대한 유의확률 p=0.004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지시, 통제, 처벌, 보상 등에 의해 발휘되는 전통적인 리더십보다는 자기 스스로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연습해보며, 목표에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비판, 또는 건설적 사고 등을 하는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 0.45으로 영향을 미치고 CR=3.412에 대한 유의확률 p=0.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 간에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셀프리더십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r=.306$ ,  $p<.001$ ),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 $r=.291$ ,  $p<.001$ ), 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 $r=.559$ ,  $p<.001$ )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결과  $\beta=.53$ (C.R.=2.885,  $p=.004$ )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beta=.42$  (C.R.=1.999,  $p=.046$ )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beta=.45$  (C.R.=3.412,  $p<.001$ )로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셀프리더십이 직접적으로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0.415( $p=.003$ ),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0.237( $p=.010$ )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및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임파워먼트도 높아지며,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 셀프 리더십 향상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인되었으므로 간호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 리더십 향상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기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16(1), 14~23, 2010.
- [2]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2005
- [3] S. J.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2006
- [4] K. S. Kang, Effectiveness of Video-Record Method on Fundamental Nursing Skill Education -Focused on Enema,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3(2), 273~283, 1996.
- [5] G, A, Seomun. The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Outcome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1(1), 45~48, 2005.
- [6] Manz, C. C.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Prentice-Hall, Englewood Cloffs, N, J, 1983.
- [7] Y. S. Lee, S. H. Park, J. K. K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6), 229~ 240, 2014.
- [8] Christyn, L. D. Mike, S. & A. S. Mary,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leadership and enhanced psychological, health, and work outcome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5(5), 469-485, 2001.  
DOI: <http://dx.doi.org/10.1080/00223980109603713>
- [9] Kanter, R. M..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2nd ed). New York, NY: Basic Books, Inc, 1971.
- [10] S. J. Ha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1), 132~146, 2000.
- [11]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86.
- [12] J. Hyun, J. E. Cha, T. E. Kim. Prediction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by a School Grade,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0(2), 443~465, 2006.
- [13] H. S. Kim. *Middle school teacher job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14] A. Y. Kim, I. 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2001.
- [15] Bolton, B., & Brooking, J.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rapersonal empowerment. *Rehabilitation Psychology*, 43(2), 131-142, 1998.  
DOI: <http://dx.doi.org/10.1037/0090-5550.43.2.131>
- [16] A. R. Joo *The Effect of the Empowerment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on of Internet Games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6.
- [17] J. Y. Lee, M. H. Cho Correlations Betwee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Process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Korea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3(3,4), 241~253, 2012.
- [18]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2), 216~225, 2011.
- [19] Y. S. Lee, S. H. Park.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6),229~240, 2014.
- [20] S. K. Chung. Effects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2), 7160~7169,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2.7160>
- [21] K. M. Chang,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6(10), 185-196, 2005.
- [22] J. A. Lee, & W. Y. Choi. Comparision between college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academic self-efficacy, social supports, and career aspiration. *Disability & Employment*, 20(2), 55-76, 2010.

DOI: <http://dx.doi.org/10.15707/disem.2010.20.2.003>

- [23] J. A. Lee. Medicating effect of outcome expectations in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to major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5), 2329-2344, 2012.

DOI: <http://dx.doi.org/10.15703/kjc.13.5.201210.2329>

- [24] C.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Empower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2(2), 196~203, 2006.

---

**최 연 희**(Yeon-Hee Choi)

[정회원]



•2006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보건교육,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지역사회보건간호

---

**정 창 숙**(Chang-Suk Jung)

[정회원]



•2014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건강증진, 지역사회보건간호